

『대학사변록』에 나타난 박세당의 ‘격물치지’ 해석과 주희 비판의 성격

한재훈*

주제분류 동양철학, 유학, 성리학, 한국성리학

주요어 서계, 박세당, 주희, 대학사변록, 격물치지, 한국성리학

요약문

그동안 박세당은 ‘반주자학자’ 혹은 ‘탈주자학자’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취급되었던 것이 『사변록』이며 그 중에서도 『대학사변록』이 가장 대표적이다. 실제로 그는 『대학사변록』에서 주희의 학설에 여러 이견을 제기했고, 주희의 작업들에 수정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대학사변록』을 엄밀하게 분석·검토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사변록』은 『대학』에 대한 주희의 주석이 갖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완하려고 한 것일 뿐 주희 성리학의 이론체계를 반대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탈하려는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학사변록』에 나타난 ‘격물치지’에 대한 서계 박세당의 해석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상을 구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 적어도 『대학사변록』에 나타난 박세당의 ‘격물치지’ 해석을 통해서 그가 ‘반주자학자’ 또는 ‘탈주자학자’로 평가받을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박세당이 주희의 성리학적 이론체계 자체를 부정한 사례를 『대학사변록』에서는 찾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가 누구 못지않게 주희의 학문적 업적을 높게 평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세당이 『대학사변록』을 통해 비판적 이의를 제기한 것은 주희의 ‘격물치지설’이 『대학』의 주석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 연세대학교

1. 서론

노환 중에 있던 75세의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은 『사변록(思辨錄)』을 저술한 것이 빌미가 되어 “사문(斯文)의 변괴, 오도(吾道)의 난적”¹⁾이라는 죄명으로 탄핵되었고, 이에 따라 삭탈관직과 문외출송의 엄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학설은 조목조목 변괴(辨破)되고 저술들은 모조리 불태워지는 참화를 당했다.²⁾ 주희(朱熹: 1130~1200) 성리학을 정치적·사상적 토대로 삼았던 조선에서 주희의 학설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곧 ‘사문난적(斯文亂賊)’을 뜻했다.

박세당이 이와 같은 화를 당한 며칠 뒤 그의 문인 중 한 사람이 스승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상소를 올렸다.³⁾ 이 상소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박세당에 대한 탄핵은 순수하게 학술적 이유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문도들의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⁴⁾ 하지만 박세당의 억울함과는 별개로, 주희의 학설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도 탄핵의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 당시 조선의 현

1) 『肅宗實錄』 38卷, 肅宗 29年 4月 17日: 館學儒生洪啓迪等百八十八人上疏曰: “... 蓋欲置朱子於僮侗, 而自立於高明之域, 豈非斯文之變怪, 吾道之亂賊也?”

2) 『肅宗實錄』 38卷, 肅宗 29年 4月 17日: 答曰: “朴世堂之侮聖醜正, 一至於此, 則斯文所關, 決難置之. ... 朴世堂爲先削奪官爵, 門外黜送, 仍令儒臣, 逐段辨破後, 碑文、冊子一時投火.”

박세당의 학설을 변화하기 위해 권상유(權尙游)와 김창협(金昌協)은 각각 「사변록변(思辨錄辨)」과 「논사변록변(論思辨錄辨)」을 지어 『사변록』의 내용을 공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태년, 「박세당의 『사변록』 저술 동기와 『대학』 보문 재배열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상과 문화』 51,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215~216쪽 각주5 참조.

3) 상소문을 올린 사람은 당시 수찬(修撰)이었던 이탄(李坦)이었다. 상소문의 자세한 내용은 『肅宗實錄』 38卷, 肅宗 29年 4月 23日 기사 참조.

4) 이와 관련한 내용은 김세봉, 「서계 박세당의 대학인식과 사회적 반향」, 『동양고전연구』 34, 동양고전학회, 2009, 101~107쪽에 자세히 다.

실이었다.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변과 논쟁들을 거치면서 발전해오던 조선의 성리학은 17세기 이후 교조적 경향을 보이면서 점차 경화현상을 드러냈고, 이에 대한 반발로 18세기 이후에는 기존의 성리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반성과 더불어 이른바 실학적 담론이 형성되면서 사상적 균열이 일어났다.

현대의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변화상은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포착되었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나 최한기(崔漢綺: 1803~1877) 등에게서 이른바 실학적인 면모를 확인한 연구자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선하로서 이익(李滉: 1681~1763)이나 홍대용(洪大容: 1731~1783) 등에 주목했다. 그리고 다시 더 소급해 올라가서 주자 성리학으로부터 학문적 균열을 만들어낸 인물들로 윤희(尹鑄: 1617~1680)나 박세당 등을 발굴했다.

애초 박세당에게 주목한 것이 이러한 목적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초의 연구가 ‘반주자학’ 또는 ‘실학사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⁵⁾ 그리고 이후 발표된 그에 관한 연구들 역시 대체로 ‘반주자학’ 또는 ‘탈주자학’적 성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경향과 더불어 이를 반성적으로 재검토하는 시도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박세당 관련 최근의 연구성과를 시간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발표된 것으로 한정하고, 주제 역시 『사변록』과 관련한 연구들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박세당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혼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기존의 연구 경향과 같은 선상에서 박세당을 반주자학자 또는 탈주자

5) 박세당에 대한 현대적 연구는 이병도의 「박서계와 반주자학적 사상」(『대동문화연구』 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6.)과 윤시순의 「박세당의 실학사상에 관한 연구」(『아세아연구』 15-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로부터 시작되었다.

학자로 보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윤미길은 “박세당은 윤희와 더불어 반주자학적 태도로써 자주적 학풍을 일으킨 대표적 학자로 꼽힌다”고 했고,⁶⁾ 김세정은 “박세당은 ‘반주자학자’ 또는 ‘탈주자학자’라는 평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았으며,⁷⁾ 이종성은 “박세당은 자주적으로 탈주자학적 성향의 사유를 모색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⁸⁾ 한편, 박세당을 반주자학자 또는 탈주자학자로 보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강지은은 “『대학사변록』이 수행한 『대학장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반주자·탈주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고,⁹⁾ 김태년은 “『사변록』의 저술 동기와 『대학』 본문의 재배열은 박세당을 ‘사문난적’으로 몰거나 ‘탈주자학자’ 또는 ‘반주자학자’로 평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¹⁰⁾ 그런가 하면, 이 두 가지 입장의 중간 썸에 있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이영호는 “『대학사변록』에 나타난 박세당 경학의 특징은 탈주자학적 성향과 주자학적 기저라는 이중성”이라고 보았고,¹¹⁾ 김세봉은 “박세당은 당시 경직화된 주자성리학에 매몰되지 않은 채 독자적 노선을 걸으며 실질적 학문에 정진하고 실학의 가교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¹²⁾

-
- 6) 윤미길, 「박세당의 사서주해에 대한 일고찰-다산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9, 한국어교육학회, 2002, 347쪽.
 - 7) 김세정, 「명제 윤희와 서계 박세당의 격물 논변」, 『동양철학연구』 56, 동양철학연구회, 2008, 9쪽.
 - 8) 이종성, 「서계 박세당의 실학적 격물 인식-명제 윤희와의 격물 논변을 중심으로」, 『공자학』 19, 한국공자학회, 2010, 14쪽.
 - 9) 강지은, 「서계 박세당의 『대학사변록』에 대한 재검토」, 『한국실학연구』 13, 한국실학학회, 2007, 328쪽.
 - 10) 김태년, 「박세당의 『사변록』 저술 동기와 『대학』 본문 재배열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상과 문화』 51,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235쪽.
 - 11) 이영호, 「서계 박세당의 『사변록·대학』에 대한 연구」, 『한문학보』 2, 우리한문학회, 2000, 152쪽.
 - 12) 김세봉, 「서계 박세당의 대학인식과 사회적 반향」, 『동양고전연구』 34, 동양고전학회, 2009, 110쪽.

박세당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주제로 진행되었음에도 서로 다른 평가가 혼재할 만큼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연구 방법이 일정 정도 목적성을 갖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일체의 목적성을 배제하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 성격을 구명하는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텍스트를 선택하고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통해 개별적인 연구들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들의 축적을 통해 실체를 구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와 같은 방법론에 입각하여, 박세당의 저술들 중에서 특별히 『대학사변록』이라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격물치지’라는 특정 주제에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물론 이 텍스트와 이 주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여러 텍스트들 중에 『대학사변록』이 함께 다루어지거나, 『대학사변록』만을 다루었다하더라도 다른 주제들 중 하나로 ‘격물치지’가 다루어지는 방식이었다. 이에 비해 본 논문은 『대학사변록』의 ‘격물치지’에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의 ‘격물치지’에 대한 박세당의 실제적 견해를 구명함으로써 또 다른 텍스트와 주제들에 대한 연구성과와 결합하여 박세당의 사상사적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2. 박세당의 『대학사변록』 집필 의도

박세당은 52세(1680)에 『대학사변록(大學思辨錄)』을 저술했고, 59세(1687)에 『중용사변록(中庸思辨錄)』, 60세(1688)에 『논어사변록(論語思辨錄)』, 61세(1689)에 『맹자사변록(孟子思辨錄)』, 63세(1691)에 『상서사변록

(尙書思辨錄)을 각각 저술했으며, 65세(1693)부터 『모시사변록(毛詩思辨錄)』을 짓기 시작하였으나 완성을 보지는 못했다.¹³⁾

『사변록』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저술한 『대학사변록』의 「소서(小序)」에 따르면, 40세 이후 관직에서 은퇴한 박세당은¹⁴⁾ 오로지 경서(經書) 연구에만 집중하면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변록』 저술에 몰두했다. 하나는 해당 텍스트의 순서나 자구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에 대한 주석과 해설의 잘못을 변증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박세당은 특히 사서(四書)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¹⁵⁾

-
- 13) 『西溪集』 卷22, 「年譜」 참조. 「연보」에 따르면 『모시사변록』은 「대아(大雅)·채록(采綠)」편까지만 저술이 진행되었고 완성을 보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박세당이 이후 10년 동안 계속되는 병환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시경』보다 『서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대해 박세당은 동의하지 않으면서, 서사의 목적성과 시대적 맥락 등이 비교적 분명한 『서경』에 비해 그렇지 않은 『시경』이 이해하는 데 더 어렵다고 보았다는 사실이다.
- 14) 박세당은 32세(1660) 늦은 나이에 증광시에 장원이 되어 비로소 관직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이조·예조·병조 및 삼사, 함경북도 병마평사 등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러나 그는 40세(1668) 때 문신 월과(月課)를 세 차례나 제출하지 않은 일로 파직되었고, 마침내 양주 수락산 석천동에 낙향하여 은거하듯 지냈다. 「연보」에서는 이미 휴관(休官)할 뜻이 있었던 박세당은 이때 일부러 제출하지 않아 파직의 빌미를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후 그에게 여러 차례 관직이 제수되었으나 통진현감을 비롯하여 몇 차례 지방관에 부임하였을 뿐 더 이상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김세봉, 「서계 박세당의 대학인식과 사회적 반향」, 『동양고전연구』 34, 동양고전학회, 2009, 93~4쪽.)
- 15) 『大學思辨錄』 「小序」: 先生既退閑居, 遂專意加工於經書, 沈潛累年, 融解貫通然後, 始乃正其編簡字句之錯訛, 辨其箋註解說之差誤, 錄而成書, 名曰『通說』, 或稱『思辨錄』, 蓋於四書尤致力焉.
이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변록』의 원래 이름은 『통설(通說)』이었고 『사변록』은 ‘혹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전하는 『思辨錄』 「序」에는 “裒以成編, 名曰『思辨錄』”이라고 되어 있으나, 박세당의 문집에 수록된 「序通說」과 「年譜」에는 같은 내용을 “裒以成編, 名曰『通說』”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해서 보면, 『사변록』의 원래 이름은 『통설』이었으며, 이후 어떤 이유로 개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사변록』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박세당은 『대학』·『중용』·『논어』에 이어 『맹자』까지 사서의 『사변록』 저술을 모두 마친 1689년에 「사변록서(思辨錄序)」를 지었다. 이 글에서 박세당은 자신이 『사변록』을 저술한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것은 요순(堯舜) 이래 수많은 성인들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경전의 뜻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박세당은 이 글에서 먼저 육경(六經)으로 대변되는 유가 경전들이 “그 이치는 정밀하고 그 의미는 완전하며, 그 의도는 깊고 그 취지는 멀다”(其理精而其義備, 其意深而其旨遠.)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유가 경전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우선 그가 유학자로서 존경심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자신이 『사변록』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당화해주는 복선이 이 말속에 깔려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즉, 경전의 내용이 정밀하고 완전하며, 깊고 멀기 때문에 “미천하고 고루한 식견으로 그것을 밝혀낼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며,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이른바 사이비들의 출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다.¹⁶⁾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박세당이 시행착오와 사이비들의 출현 기간을 “위로는 진한(秦漢)에서부터 아래로는 수당(隋唐)에 이르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송대(宋代) 정주학(程朱學)의 업적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그러므로 송대에 이르러 정(程)·주(朱) 두 부자께서 나오셔서 해와 달의 거울을 닦으시고 천둥의 복을 두드리시자, 소리는 훨씬 멀리 퍼

16) 『大學思辨錄』「序」: 六經之書, 皆記堯舜以來羣聖之言, 其理精而其義備, 其意深而其旨遠. 蓋論其精也, 毫忽之不可亂; 語其備也, 纖微之無或闕; 欲測其深, 莫得其所底; 欲窮其遠, 不見其所極, 固非世之曲士拘儒淺量陋識所可明也. 是以上自秦漢下逮隋唐, 分門割戶, 斷肢裂幅, 卒以破毀乎大體者, 不可勝數. 其陷溺異端者, 多假借近似, 以飾其邪遁之辭; 其抱持前籍者, 又膠滯迂僻, 全昧夫坦夷之塗. 嗚呼此豈聖賢所以勤勤懇懇爲此書記此言, 以明乎此法, 而庶幾有望於天下後世之意哉?

졌고 빛은 훨씬 널리 덮였다. 육경(六經)의 취지가 이제야 찬란하게 다시 세상에 밝혀졌다.¹⁷⁾

여기에서 언급한 ‘해와 달의 거울’이나 ‘천둥의 북’은 이 글에 앞서 박세당이 예로 들었던 것을 받은 말이다. 즉, 눈먼 사람은 해와 달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귀먹은 사람은 천둥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해도 해와 달의 빛이나 천둥의 소리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예를 통해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사이비들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경전 속 진리는 그대로임을 보여준다.¹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주가 그것을 다시 밝힐 수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박세당이 구사하는 이러한 논의구조 즉, 성인의 말씀은 완벽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진·한에서부터 수·당까지 묻혀 있던 진리가 송대에 이르러 다시 밝혀지게 되었다는 구조는, 주희의 『대학장구서』의 구조와 대단히 흡사하다. 『대학장구서』에서 주희는 맹자 이후 “그 글은 남아 있었지만 아는 이가 드물었다”는 말로 진·한에서부터 수·당까지를 사상적 암흑기로 평가하고, 송대에 정씨(程氏) 형제의 출현과 더불어 다시 도통(道統)이 이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⁹⁾ 단, 주희는 정씨 형제만을 언급했지만, 박세당은 정·주를 함께 언급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박세당이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도통론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박세당이 『사변록』을 저술할 때 특히 사서(四書)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과 오버랩되면서, 박세당의 학술을 반주자 또는 탈주자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그의 입

17) 『大學思辨錄』「序」: 故及宋之時, 程、朱兩夫子興, 乃磨日月之鏡, 掉雷霆之鼓, 聲之所及者遠, 光之所被者普, 六經之旨, 於是而爛然復明於世.

18) 『大學思辨錄』「序」: 夫聾則不聞乎雷霆之聲, 瞽則不覩乎日月之光. 彼聾瞽者病耳, 雷霆日月固自若也, 行乎天地而震烈, 耀乎古今而晃朗, 未嘗爲聾與瞽而聲光之或虧.

19) 『大學章句』「序」: 及孟子沒, 而其傳泯焉, 則其書雖存, 而知者鮮矣. … 宋德隆盛, 治教休明. 於是河南程氏兩夫子出, 而有以接乎孟氏之傳.

장에 부합한 것인지 회의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세당은 틀림없이 주희의 해석에 다수의 이의를 제기한 『사변록』이라는 저술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주희에 의해 완벽하게 조정된 『대학』의 편차를 재조정하는 등의 작업도 감행했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이른바 주자학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세당 자신도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²⁰⁾ 그의 학술을 반주자 또는 탈주자로 보는 후대의 평가는 이와 같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희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희의 학설을 비판한 박세당의 이중적인 학술 양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위와 같이 정·주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자신이 『사변록』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경전의 말씀이 그 본통[統]은 비록 하나이지만 그 단서[縮]는 천만 갈래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를 것은 한 가지이지만 생각할 것은 백 가지이고, 돌아갈 곳은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아무리 절대적 지식과 독보적 식견, 심오한 안목과 현묘한 조예를 갖추었다 해도 그것이 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실현하여 미세한 실수조차 없기란 불가능하다. 반드시 다중의 장점을 널리 모으고 작은 흠류함도 버리지 않고서야 조략한 것도 빠뜨림이 없고 친근한 것도 새나감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고서야 깊고, 멀고, 정밀하고, 완벽한 것들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체 넘는 짓임을 잊은 채 좁은 소견으로 터득한 바를 대강 기술하고 이를 모아 엮어 그 이름을 『사변록』이라고 했다.²¹⁾

20) 『大學思辨錄』 「大學章句識疑」: 褊見淺識, 破裂經傳, 安得辭其罪也, 安得辭其罪也?

21) 『大學思辨錄』 「序」: 然經之所言, 其統雖一, 而其緒千萬, 是所謂“一致而百慮, 同歸而殊塗”, 故雖絕知獨識, 淵覽玄造, 猶有未能盡極其趣, 而無失細微, 必待乎博集衆長, 不廢小善, 然後粗略無所遺, 淺邇無所漏, 深遠精備之體乃得俱全. 是以輒忘僭汰, 槩述其蠡測管窺之所得, 裒以成編, 名曰『思辨錄』.

여기에서 박세당은 처음에 제기했던 내용 즉, ‘경전의 위대함’을 다시 거론한다. 그 위대함 때문에 제아무리 절대적인 지식과 독보적인 식견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경전의 내용을 모두 커버할 수 없으며 미세한 부분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뛰어난 한 사람의 홀륭함에 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작지만 다양한 장점들이 모여져야 ‘경전의 위대함’을 밝혀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박세당의 생각이다.

박세당은 자신이 『사변록』을 저술한 의도 역시 바로 그 작은 장점들 중 하나를 제안하려는 데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일깨우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선유들의 의도에 동참하고자 한 것일 뿐, 결코 기존의 학설과 다른 특별한 이설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²²⁾ 이는 박세당이 주희로 상징되는 선유(先儒)들의 학설에 당장은 위배될지라도 그 의도에 동참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선유를 계승하는 길이라고 여겼음을 말해준다.

『사변록』 전체가 이와 같은 의도에서 저술되었겠지만, 특히 『대학사변록』에서 박세당의 이런 의도를 더욱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대학사변록』에 「대학장구지의(大學章句識疑)」²³⁾라는 글을 첨부해 두었다. 1674년(46세)에 쓴 이 글은 1680년(52세)에 완성된 『대학사변록』의 선행 작업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²⁴⁾ 이 글에서 그는 ‘『대학』을 『대학장구』에

22) 『大學思辨錄』「序」: 倘於先儒隔世相民之意, 不無有塵露之助, 故非出於喜爲異同, 立此一說.

23) 이 글은 그가 46세 되던 1674년 7월 27일 석천거사(石泉居舍)에서 썼다고 명기되어 있다.(甲寅七月二十七日, 書于石泉居舍.)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세당은 40세 이후 몇 차례 지방관에 부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양주 수락산 아래 석천동에 거처하면서 경전 연구에만 매진했다. 이 글은 바로 이 시기에 저술된 것이다.

24) 김태년에 따르면 박세당은 1674년 「대학장구지의」를 짓고, 1684년 『대학사변록』을 완성했다.(김태년이 『대학사변록』의 완성 시기를 「연보」에 제시된 1680년이 아니라 1684년으로 보는 것은 『한국경학자료집성』 3(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9), 144쪽에 수록된 『사변록대학』에 나오는 “自余改定『章句』已十年”에 근거한다.) 김태년은 “원문을 재배열하는 「대학장구지의」를 지은 뒤 10여 년에

따라 읽었는데 석연치 않은 데가 있었고,²⁵⁾ 이런 부분에 연구를 집중하여 몇몇 군데의 편차를 조정했으며, 이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문리가 통하지 않는 문제를 없애기를 바라는 의도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²⁶⁾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러한 작업이 결국은 주희의 뜻에 벗어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심 가는 것들을 기록함으로써[識疑] 나 스스로 의우고 익히는 데에 편의를 기하려고 한 것일 뿐, 감히 다른 사람들을 번거롭게 함으로써 ‘주제넘고, 선부르며, 어긋나고, 그릇되다’는 죄를 얻으려 함이 아니다. 그러나 그 큰 근본을 따져 보면 결국은 주자(朱子)의 본뜻을 잃지 않았다 할 것이다.²⁷⁾

걸쳐 『대학』의 내용 해설, 주희의 주석에 대한 비판 등을 덧붙여 『대학사변록』을 완성했다.”고 본다.(김태년, 「박세당의 『사변록』 저술 동기와 『대학』 본문 재배열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상과 문화』 51,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222쪽, 각주 20번 참조.)

- 25) 『大學思辨錄』「小序」에 따르면, 박세당이 어려서부터 『대학』을 읽으면서 석연치 않다고 느낀 대표적인 부분은 『대학장구』 전3장에 수록된 “瞻彼淇澳…”과 “前王不忘…” 두 군데였다고 한다. 실제로 이 두 부분은 나중에 『대학사변록』을 저술 하면서 전3장에서 전10장으로 옮겨졌다.(『大學思辨錄』「小序」: 先生少時讀『大學』至「瞻彼淇澳」及「前王不忘」兩節，輒疑其上下文義不相貫屬，反復究思，終有所不通者，每掩卷而廢之，及著『思辨錄』，移此兩段於第十平天下章.)
- 26) 『大學思辨錄』「大學章句識疑」: 余嘗讀『大學章句』，多所未解，竊不能無疑，伏而細繹，似有一二可議者，輒不揆僭越，以意易置如此，或冀文從其類，語不失次，無難曉不通之患。
- 박세당이 『사변록』의 원래 이름을 『통설(通說)]로 명명한 것도 어쩌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통하지 않는 근심을 없애겠다”(無難曉不通之患)는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9년(1703) 4월 17일 조에 홍계적(洪啓迪)을 소두로 한 관학 유생 180명이 박세당을 배척하라고 올린 상소문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하나의 학설을 만들어 이름을 『통설』이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주자의 해설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해설과 같이 해야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作爲一說，名以『通說』，其意謂‘朱子之說有所不通，必如吾之說而後可通。’) 이는 『사변록』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통설』로 지칭되었으며, 『통설』이라는 책은 ‘경전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저술된 것이었음을 방증해주고 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박세당은 “어떻게 주자의 본뜻에 부합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었다. 즉, 『대학』에 대한 자신의 작업이 결코 주희의 작업에 괜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독창적인 견해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희의 작업이 갖는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주희의 의도를 완성시키는 ‘작은 훌륭한’들 중에 하나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다음 시에 잘 드러나 있다.

육경의 관건(關鍵)과 추뉴(樞紐)를 누가 능히 열 수 있었으랴?
자양(紫陽 주희를 지칭)의 주석은 고급에 다시 없으리라.
후세의 현인들 기뻐할 줄은 알아도 도울 줄 아는 이 드무니,
어리석은 듯하나 어리석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²⁸⁾

더구나 박세당은 『대학』의 편차 수정의 필요성은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즉, 『대학』은 『중용(中庸)』과 더불어 『예기(禮記)』의 편들인데, 『예기』는 진(秦)대의 소실(煨燼)과 한(漢)대의 수습(拾綴) 과정을 거치면서 착간(錯簡)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 역시 이 착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학』의 착간을 지적하고 개정한 예는 주자 이전에 양정(兩程)이 있었고, 주자 이후에도 많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수정 작업이 계속되는 이유는 여전히 “의미가 후련하게 해석되지 못하고 맥락이 일관되게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²⁹⁾

27) 『大學思辨錄』「大學章句識疑」: 然唯以識疑, 兼自便誦習, 不敢煩諸他人, 以取狂妄悖謬之罪, 然究其大本, 終不失朱子之旨云.

28) 『西溪集』卷4, 「石泉錄[下]·六籍」: 六籍誰能發鍵樞, 紫陽傳註古今無. 後賢知說鮮知助, 可道如愚是不愚.

29) 『中庸思辨錄』「小序」: 先生嘗曰: “『庸』、『學』同出於『禮記』, 而『禮記』一書固漢儒拾綴煨燼之餘, 故錯簡居多, 則『庸』、『學』獨安保其不然乎? 是故『大學』之指定

이런 점에서 “『대학사변록』의 주석은 『대학장구대전』에서 제시된 문제들 중 주희가 명쾌하게 해설해내지 못한 부분을 비판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 저술”이라는 강지은의 평가³⁰⁾나 “박세당이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바꾼 것은 체계적인 고증을 통해 『대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 체계를 제시하려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말대로 단지 문맥을 순하게 연결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라는 김태년의 평가³¹⁾는 박세당이 『대학사변록』을 집필한 의도와 관련하여 정당한 평가로 이해된다.

3. 박세당의 ‘격물치지’ 이해

박세당이 『대학』의 ‘격물(格物)’과 ‘치지(致知)’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논하기에 앞서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박세당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다음 두 가지 기본 전제에 집중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세당은 먼저 『대학』의 ‘격물치지’에 대한 모든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텍스트(『대학』)의 전체 구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다음으로 그러한 논의는 당연히 텍스트(『대학』)의 목표 대상인 15세 초학자들의 학습을 위한다는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첫 번째 전제와 관련하여 박세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학』의 의도는 본래 사(事)와 물(物)에 따라 격(格)과 치(致)의

錯簡者, 朱子之前, 自有兩程; 朱子之後, 亦多有之. 誠見語意之有所不暢, 脈絡之有所不貫故耳.”

30) 강지은, 「서계 박세당의 『대학사변록』에 대한 재검토」, 『한국실학연구』 13, 한국실학학회, 2007, 326쪽.

31) 김태년, 「박세당의 『사변록』 저술 동기와 『대학』 본문 재배열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상과 문화』 51,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233쪽.

노력을 기울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지(知)가 맞닥뜨린 사와 물에 대하여 그 대처할 바를 살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과정에 발하여 시행된 의(意)가 자연히 진실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다.³²⁾

박세당의 이 말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나는 ‘격물’과 ‘치지’를 ‘성의(誠意)’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희처럼 사를 물 안에 포함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와 물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박세당의 ‘격물치지설’ 내에서 긴밀한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대학』의 팔조목에 속하는 ‘격물’과 ‘치지’는 당연히 ‘성의’를 위시한 나머지 조목들과의 관련성을 유념하면서 논의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사 각각에 대해 격물치지가 진행되어야 비로소 성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본 것이다.³³⁾

박세당은 『대학』 경문에 “물에는 본(本)과 말(末)이 있고 사에는 종(終)과 시(始)가 있으니,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안다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³⁴⁾라고 한 것처럼, 엄연히 물과 사를 구분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 둘을 한 데 뒤섞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³⁵⁾ 그리하여 박세당은 이러한 물과 사의 구분을 아래에 제시되는 ‘팔조목’과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물(物)은 아랫글에서 말하는 천하(天下)·국(國)·가(家)·신(身)·심(心)·의(意)·지(知)·물(物) 같은 것이 해당되고, 사(事)는 평(平)·치(治)·제(齊)·수(修)·정(正)·성(誠)·치(致)·격(格) 같은 것이 해당된다.³⁶⁾

-
- 32) 『大學思辨錄』·經一章: 蓋大學之意, 本欲學者隨事隨物用其格致之功, 使吾之知, 當是事是物而審其所處, 則意之所發而施於其間者, 自無不實也.
- 33) 『大學思辨錄』·經一章: 經之意, 蓋謂隨物而格, 以致其知, 使吾之知, 當一物一事之間, 審其善惡如惡臭好色, 則意之好惡, 自無不誠焉耳.
- 34) 『大學』: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 35) 『大學思辨錄』·經一章: 且物之與事, 固當有辨, 不容混合.

천하(天下)·국(國)·가(家) 같은 것은 물이지 사가 될 수 없으며, 평(平)·치(治)·제(齊) 같은 것은 사이지 물이 될 수 없다.³⁷⁾

만일 사(事)를 가리키고 물(物)을 가리키는 미세한 갈림처에서 학자들로 하여금 혼동함을 면치 못하게 한다면 이치를 살피고 의의를 변별하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³⁸⁾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박세당은 팔조목으로 제시된 개념들을 타동사와 목적어로 구분하여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은 물, 타동사에 해당하는 것은 사로 정리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구분법은 『대학』의 강령인 명덕(明德)과 신민(新民)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목적어인 덕과 민은 물, 타동사인 명과 신은 사로 보고 있다.³⁹⁾

이처럼 물과 사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박세당의 방식은 당연히 원전인 『대학』 내에서 격물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대학』에서 물과 사를 구분하여 제시한 다음 팔조목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감안할 때,⁴⁰⁾ 이처럼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박세당이 ‘격물치지’와 관련하여 물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를 물로부터 독립시켜서 지(知)의 대상으로 명확히 해

-
- 36) 『大學思辨錄』·經一章: 物者, 如下文曰天下、曰國、曰家、曰身、曰心、曰意、曰知、曰物, 是也; 事者, 如其曰平、曰治、曰齊、曰修、曰正、曰誠、曰致、曰格, 是也.
- 37) 『大學思辨錄』·經一章: 如天下、國、家, 是爲物, 不得爲事; 平、治、齊, 是爲事, 不得爲物.
- 38) 『大學思辨錄』·經一章: 今若於指事指物毫縷分析之處, 使學者而不免於混之, 則無亦妨於察理辨義之功乎?
- 39) 『大學思辨錄』·經一章: 蓋在明德、新民, 則德與民爲物, 而明與新爲事, 理有不容混而爲一者.
- 40) 『大學思辨錄』·經一章: 此一節引發下兩節之意, 其所以開示者, 至此而益明切矣.(여기에서 ‘此一節’은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를 가리키고, ‘下兩節’은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 致知在格物’과 ‘物格而後知至, … 國治而後天下平’을 가리킨다.)

야 『대학』의 팔조목을 실천적으로 성취하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일[事]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인지와 그 일을 할 때 마땅히 머물러야 할 바에 대해 알아야 한다.⁴¹⁾

사(事)는 물(物)을 다스리는 것이며, 지(知)로써 사(事)의 적당함을 변별한다.⁴²⁾

『대학』에서 ‘격물치지’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천하·국가와 같은 물 그 자체보다 이것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즉, 평·치·제와 같은 사의 적당함을 변별해서 실천적 성취로 연결하는 데 있다는 것이 박세당의 생각이다.⁴³⁾ 하지만 사의 적당함을 변별해내는 것은 당연히 물의 법칙성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⁴⁴⁾ 그래서 박세당은 ‘격물’과 ‘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구하여 이르러 가는 것을 ‘치(致)’라고 한다. ‘격(格)’은 법칙[則]이며 올바름[正]이다. 어떤 물(物)이든 반드시 법칙을 갖게 마련이다. 물이 격(법칙이며 올바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법칙을 구해서 올바름을 얻기를 기약하는 근거이다. 나의 지(知)로 하여금 사(事)의 당연한 바에 이르러 대처함이 극진하지 않음이 없게 되도록 하려면, 그 핵심은 오직 물의 법칙을 찾아서 그 올바름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한다.⁴⁵⁾

41) 『大學思辨錄』·經一章: 人欲有爲, 必須知何事之當爲, 與爲事所當止.

42) 『大學思辨錄』·經一章: 事者, 所以理夫物也, 知以辨事之宜.

43) 『大學思辨錄』·補亡章: 其所謂應接事物而處其當否者, 尤爲最切, 愚故以爲『大學』格致之旨要不外此.

44) 『大學思辨錄』·經一章: 格物, 所以致知. / 같은 곳: 求物之則而得其正, 然後吾之知能至乎事之所當而可以無所疑矣.

45) 『大學思辨錄』·經一章: 求以至曰致. 格, 則也, 正也. 有物必有則, 物之有格, 所以求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박세당이 ‘격물’의 ‘격’에 대해 ‘법칙’과 ‘올바름’이라는 이중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법칙’은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지칭하고, ‘올바름’은 그것을 다룰 때 요구되는 정당한 방식을 지칭한다. 이때 정당한 방식이 물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근거한 것임은 당연하며, 이런 점에서 정당한 방식은 자연스럽게 물을 다스리는사와 연결된다. 둘째는 박세당이 해석한 ‘치지’의 ‘지’는 물이 아니라 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의 당연한 바’를 알아서 결과적으로 물에 대한 대처가 완벽할 수 있도록 하는 데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언급은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준다.

물(物)의 법칙을 구해서 그 올바름을 얻은 연후에야 나의 지(知)가 사(事)의 당연한 바에 이르러 의혹하는 바가 없게 될 수 있다.⁴⁶⁾

박세당은 『대학』의 ‘격물치지’를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그것이 팔조목에서 다음 단계인 성의(誠意)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⁴⁷⁾ 앞에서 살펴본 “사와 물에 따라 격과 치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대학』의 본래 의도였다거나, 그 결과 “자신의 지(知)가 맞닥뜨린 사와 물에 대하여 그 대처할 바를 살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과정에 발하여 시행된 의(意)가 자연히 진실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라는 언급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⁴⁸⁾

其則而期得乎正也，蓋言欲使吾之知，能至乎是事之所當，而處之無不盡，則其要唯在乎尋索是物之則而得其正也。

- 46) 『大學思辨錄』·經一章: 求物之則而得其正，然後吾之知能至乎事之所當而可以無所疑矣。
47) 『大學思辨錄』·經一章: 知事之所當而無所疑，然後意乃得以誠 / 같은 곳: 經之意，蓋謂隨物而格，以致其知，使吾之知，當一物一事之間，審其善惡如惡臭好色，則意之好惡，自無不誠焉耳。

그런데 이와 관련한 모든 논의가 15세 초학자들의 학습을 위한다는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이 비록 성인(大人)들이 배우는 것이라고는 하나, 15세 이상 초학자들을 목표 대상으로 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 수준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나 높은 수준의 경지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박세당은 보았다.⁴⁹⁾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용(中庸)』에서 온축 심오한 내용을 천명하는 정도는 『대학』과 비교하면 커다란 수준차가 있다. 그럼에도 (『중용』에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친근하고 적절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먼 데를 가려면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하고, 높은 곳을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해야 한다’거나 ‘도끼자루의 법칙은 먼 데 있지 않다’ 등의 비유는 모두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다. 하물며 이 『대학』은 ‘초학들이 덕에 들어가는 문’이라면 그 말이 당연히 더욱 친근하고 적절해야 할 것이다.⁵⁰⁾

박세당의 이 말은 『대학』이 『중용』보다 더욱 친근하고 적절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용』보다 더 어려운 말들로 『대학』을 해석해온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특히 박세당이 문제시하는 것은 『대학』 중에서도 ‘격물치지’에 관한 주희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박세당이 『대학』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의 해석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과 이유 역시 이 점에 맞추어져 있을 것임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48) 『大學思辨錄』·經一章: 蓋大學之意, 本欲學者隨事隨物用其格致之功, 使吾之知, 當是事是物而審其所處, 則意之所發而施於其間者, 自無不實也.

49) 『大學思辨錄』·經一章: 此書雖曰“大人之學”, 然乃所以訓十五以上初學之士者, 則恐不當於發教之初, 遽以此詔之.

50) 『大學思辨錄』·經一章: 『中庸』闡明蘊奧, 其視『大學』, 固有深淺之殊. 然其示人, 初未嘗不親密切當, 使之易曉, 故若“行遠自邇, 升高自卑”及“柯則不遠”之喻, 皆童孺之知所可及焉者. 況此『大學』, 乃爲初學入德之門, 則其所言當有以益加親切.

4. 박세당의 주희 ‘격물치지설’ 비판

주희의 ‘격물치지설’에 대한 박세당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맞추어져 있다. 하나는 격물치지의 대상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격물치지가 요구하는 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박세당은 주로 『대학사변록』 보망장(補亡章)을 통해 주희의 ‘격물치지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세당은 주희의 『대학혹문(大學或問)』에 수록된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그는 주희가 『대학혹문』에서 격물치지에 관한 자신의 논거로 인용하고 있는 정이(程頤: 1033~1107)의 견해를 분석함으로써 오히려 정·주의 견해를 갈라치기하고, 결과적으로 주희의 ‘격물치지설’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우선 박세당은 격물치지의 대상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주희처럼 천하의 모든 ‘만물지리(萬物之理)’를 격물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일물일사(一物一事)’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치지(致知)가 성의(誠意)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진지(眞知)’ 개념을 거론한다.

일찍이 주희는 『대학혹문』에서 정이의 ‘범에게 물려간 사람[傷虎者]’ 이야기를 통해 이 ‘진지’ 개념을 설명했다.⁵¹⁾ 그런데 박세당은 주희의 ‘진지’ 개념을 반박하는 데 이 이야기를 활용한다.

51) 『大學或問』: 昔嘗見有談虎傷人者, 衆莫不聞, 而其間一人神色獨變, 問其所以, 乃嘗傷於虎者也. 夫虎能傷人, 人孰不知, 然聞之有懼有不懼者, 知之有真有不真也. 學者之知道, 必如此人之知虎, 然後爲至耳.

‘범에게 물려간 이야기’의 경우에 이르게 되면, 비록 이 이야기를 가지고 도(道)에 대한 앎의 참됨[眞知]을 증명하였으나, 범에게 해를 입은 자가 천하의 물(物)을 다 궁구하여 마음의 지(知)를 모조리 지극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성실한지 여부는 다만 일물(一物)의 실정을 자세히 살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일 뿐, 만리(萬理)를 두루 관통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제 만일 범에게 물려가 본 자를 두고 “범이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아직도 ‘참으로 안다’라고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만리(萬理)를 남김없이 관통하고서야 비야흐로 ‘참으로 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될 말인가.⁵²⁾

실제로 주희는 “앎이 지극하다[知至]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물의 이치에 나의 앎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음을 말한다. 만일 하나만 알고 둘을 알지 못하거나, 큰 것만 알고 작은 것을 알지 못하거나, 고원한 것만 알고 심오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앎의 지극함이 아니다. 모름지기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야 지극함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박세당은 격물치지에 관한 주희의 설명이 대체로 이런 식이라면서, 자신은 이러한 설명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⁵³⁾

박세당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정이의 ‘범에게 물려간 사람’ 이야기는 애당초 도(道)에 대한 참된 앎[眞知]을 증명하기 위해 주희가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박세당은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주희 ‘격물치지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진지’란 일물에 대한 앎의

52) 『大學思辨錄』·補亡章: 至所稱傷虎之說, 則雖以證夫知道之眞, 然傷虎者固非盡格天下之物, 而畢致一心之知者. 於此, 亦可明夫人心誠否, 只在於一物之審其情與未而已, 有不待於旁貫萬理而後能者. 今若謂人之傷虎者, 未必眞知虎之可怖, 而必待於盡貫萬理而後, 方能眞知云爾, 則又豈可乎?

53) 『西溪集』卷7, 「答尹子仁書」: 有曰“知至, 謂天下事物之理, 知無不到. 若知一而不知二, 知大而不知細, 知高遠而不知幽深, 皆非知之至也. 須要無所不知, 乃爲至耳.” 前後爲說, 一皆如此, 獨無可疑者乎?

정도에 관한 것이지 만리에 대한 관통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격물치지와 성의 이하 나머지 조목들을 연결하는 ‘진지’의 성립 조건을 논함으로써 박세당은 격물치지의 대상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이는 주희의 ‘격물치지설’에서 박세당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주희의 ‘격물치지설’ 자체의 위대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학』의 격물치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인해 박세당은 “하나의 물(物)은 반드시 하나의 이치[理]를 가지고 있으니, 궁구하여 그것에 이르는 것이 이른바 ‘격물’이다.”라는 정이의 언급에 주목하면서, 정이의 말에 근거하자면 ‘격’과 ‘치’는 ‘일물일사’를 대상으로 한 개념들이며,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의 지를 극진하게 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⁵⁴⁾ 여기에서도 박세당은 정이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로 삼음과 동시에 주희의 ‘격물치지설’과 갈라치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⁵⁵⁾

박세당이 말하는 ‘일물일사’는 단순히 숫자 ‘하나’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응접(應接)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사물이라는 데 주안점이 있다. 그래서 그는 “격물을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라고 한 정이의 “사물을 응접할 때 당연함과 그렇지 않음에 대처하는 것도 궁리(窮理)”라는 말을 인용한 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 말이 격물치지의 의미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설명이며, 그중에서도 “사물을 응접할 때 당연함과 그렇지 않음에 대처하는

54) 『大學思辨錄』補亡章: 又曰: “致, 盡也, 格, 至也, 一物必有一理, 窮而至之, 所謂格物者也.” 據此則其所以爲格致之訓者, 似指一物一事而言, 恐非謂窮萬物之理而盡一心之知者也.

55) 박세당이 정이와 주희의 견해를 갈라치기하는 전략을 구사한 까닭은 정이의 권위에 의지하여 주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부담감을 상쇄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쏟아질 비판들에 대응할 진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것”이라는 말은 더욱 적절한 표현이다. 나는 이 때문에 『대학』의 격물치지의 요지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⁵⁶⁾

『대학』 격물치지의 요지를 이처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격물치지의 대상인 일상에서 응접해야 하는 ‘일물일사’는 당연히 매일매일 격치해야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일물에 대해 격하고, 내일 또 일물에 대해 격한다”는 정이의 말은 분명히 주희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⁵⁷⁾

박세당이 비판하는 주희 ‘격물치지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격물치지의 수준에 관한 것이다. 박세당은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의 요구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주희는 『대학장구』의 주(註)에서 ““물격(物格)’이란 사물의 이치의 지극한 곳이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고, ‘지지(知至)’란 내 마음의 아는 바가 극진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다”라고 했고, “얕이 극진하게 되었다면 의(意)가 진실할 수 있다”라고 했다. 만일 이 논지대로라면, 이른바 ‘성(誠)’이라는 것은 곧 (『중용』에서 말한) “본성을 극진히 하고, 사물을 극진히 하여, 화육을 돕고 천지와 더불어 셋이 되는 것”이다. 이치가 이르지 않음이 없고, 얕이 극진하지 않음이 없게 되어, 본성을 극진히 하고, 사물을 극진히 하여, 화육을 돕고 천지와 셋이 된다면 이것은 성인(聖人)의 최고 경지이며 배움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이 이외에 다시 정심과 수신을 일삼을 것이 무엇이며, 제가와 치국을 논할 것이 무엇이겠는가?⁵⁸⁾

-
- 56) 『大學思辨錄』補亡章: 又云: “格物亦非一端, 如或讀書講明道義, 或論古今人物而別其是非, 或應接事物而處其當否, 皆窮理也.” 此於格致之義最爲切當, 而其所謂“應接事物而處其當否”者, 尤爲最切, 愚故以爲『大學』格致之旨要不外此.
- 57) 『大學思辨錄』補亡章: 又曰: “今日格一物, 明日格一物.” 據此則程子所以取義於格者, 明其不與朱子同矣.
- 58) 『大學思辨錄』經一章: 註言: “物格者, 物理之極處無不到也; 知至者, 吾心之所知無不盡也.” “知既盡, 則意可得而實矣.” 若如此旨, 其所謂誠者, 乃盡性盡物, 可以贊化育而與天地參矣. 夫理無不到, 知無不盡, 而誠能盡性盡物贊化育參天地, 則此聖人之

박세당은 주희가 ‘격물치지설’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성인의 최고 경지이며, 배움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이하의 모든 조목들을 무의하게 만든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이러한 비판은 주희 ‘격물치지설’의 논리적 모순이나 이론적 결함 등에 대한 반론이 아니며, 오로지 『대학』의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으로서 적절함 또는 정당함에 대한 비판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희는 『대학』을 경(經) 1장과 전(傳) 10장 체재로 이해했고, 이와 같은 체재를 바탕으로 ‘격물치지’에 대한 전이 망실되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주희가 그 망실된 부분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지은 글이 바로 ‘보망장(補亡章)’이다. 주희는 이 보망장을 통해 격물치지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고, 이후 주희의 ‘격물치지설’에 대한 모든 논의는 반드시 이 보망장의 내용에 근거하게 되었다.

박세당 역시 주희의 『대학장구』 체재로 『대학』을 이해했으며, ‘격물치지’에 대한 전이 망실되었다는 주희의 주장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망장에 제시된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의 설명은 『대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너무나 높은 수준을 요구함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깨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제 전(傳)의 글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본래의 『대학』이)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이미 상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의 뜻을 발명해놓은 것에 근거하여 참작해 보면 그렇지(주희의 설명처럼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의’에 대한 설명을 보면, ... 이 뜻이 너무나 쉽고 가깝지 않은가? 이것이 어찌 ‘이치가 이르지 않음이 없고, 앎이 극진하지 않음이 없는 수준’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깨우쳐주는 말이겠는가? 더구나 이것만으로 ‘본성을 극진히 하고, 사물을 극진히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계기로 삼아 노력을 다한다

極功，而學之能事畢矣，又何事乎正心、修身？又何論乎齊家、治國？

면 ‘본성을 극진히 하고, 사물을 극진히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이것을 ‘이미 본성을 극진히 하고, 사물을 극진히 한 것’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을 것이다. ‘정심’에 대한 설명은 … 이것은 모두 초학자들도 능히 알 수 있는 것들로서, ‘본성을 극진히 하고, 사물을 극진히 하여, 화육을 돕고, 천지와 셋이 되는 수준’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 것이 아님도 이미 분명하다. 어찌 유독 ‘격물’에 대해서만 “사물의 이치의 지극한 곳이 반드시 이르지 않음이 없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격(格)’이라 할 수 없다”거나 ‘지지’에 대해서만 “내 마음의 이는 바가 반드시 극진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至)’라 할 수 없다”고 했겠는가?⁵⁹⁾

결국 박세당의 문제의식은 『대학』이 15세 초학자들이 학습해야 하는 텍스트라는 점과 『대학』의 모든 내용은 『대학』 자체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주희의 ‘격물치지설’은 15세 초학자들이 도저히 학습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너무 돌출적이어서 나머지 조목들과의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박세당은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이는 박세당의 비판이 『대학』에 대한 『대학장구』의 문제점에 초

59) 『大學思辨錄』經一章: 今傳文缺落, 其所以爲格致之說者, 固已無所可考矣. 然且據所發明誠、正之義以參之, 則亦有審其不然者矣. 其誠意之說, 曰“毋自欺”、曰“慎其獨”. 言“毋欺”也, 則以“惡惡臭、好好色”爲證; 言“慎獨”也, 則以“小人閒居爲不善, 見君子而厭然揜之, 則人如見其肺肝”爲證, 此之爲義不已坦易切近乎? 此又豈是指嗜“理無不到、知無不盡”以上人語耶? 且只此便可謂之“盡性盡物”乎? 若由此而致其功, 雖盡性盡物, 可也; 若以此爲已到盡性盡物之地, 則誠恐不可. 其正心之說, 則曰“心有所忿懣、恐懼、好樂、憂患, 則皆不得其正”, 又曰“心不在焉, 視不見, 聽不聞, 食不知其味”, 此皆初學之所能識者, 其非所以語夫能“盡性盡物, 可以贊化育、參天地”以上人者, 亦已明矣. 何獨於格物, 而曰“物理極處必須無不盡也, 不然則不足謂之格”, 於知至, 而曰“吾心之所知必須無不盡也, 不然則不足謂之至也”?

/ 박세당은 윤증과의 논변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다. “今據『大學』誠意、正心之說, 皆指事切物, 不啻耳提口詔, 愚婦小兒亦若可知可能, 則何嘗有如許宏大言語, 使聽之者瞭然有不可企及之憂耶? 此愚陋之所甚惑, 不審老兄於此信以爲不然乎?”(『西溪集』卷7, 「答尹子仁書」)

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 주희의 철학적 이론체계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희의 ‘격물치지설’에서 제시된 이른바 ‘활연관통’에 대한 박세당의 문제 제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세당은 주희가 주장한 ‘활연관통’과 관련하여 그것이 『대학』의 격물치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적절하고 정당한 것인가를 따졌을 뿐, 그것의 이론적 허구성이나 논리적 문제점 등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공부를 부지런히 쌓고 쌓아서 마침내 모든 이치가 다 밝아지고 온 마음이 환하게 트이게 되어 공자께서 말씀하신 “나의 도(道)는 하나로써 모든 것을 관통한다”와 같은 경지에 이르는 것은 성인의 성대한 덕과 지극한 공으로서, 이른바 ‘오직 천하의 지성(至誠)한 자’만이 해당할 것이다. 저 “한없이 아름다워 천지와 더불어 셋이 되고 화육(化育)을 돕는” 것을 “한 가지 선(善)을 얻고서는 마음속에 간직해 지니는” 것과 한 데 놓고 뒤섞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갑자기 이것을 하라고 질책하면서 유독 “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굳게 지키는” 내용은 어찌 빠뜨렸겠는가. 주부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어지선(止於至善)의 극치(極致)이며, 자신의 의(意)를 성(誠)하게 하려는 초학자의 일이 아니다.⁶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박세당은 ‘활연관통’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모든 이치가 다 밝아지고 온 마음이 환하게 트이게 되는” 경지를 공부가 축적된 이후에 가능한 경지로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은 박세당이 ‘활연관통’ 자체가 터무니없는 역설이라거나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일 뿐이라는 식의 비판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60) 『大學思辨錄』·補亡章: 若其積累之勤, 終於萬理明盡, 一心洞然, 若夫子之所謂吾道一而(以)貫之者, 則此聖人之盛德極功, 而所謂惟天下之至誠者可以當之. 彼於穆不已, 與天地參, 而能贊其化育者, 固不容與得一善而服膺者, 等而亂之, 則又豈可遽以此責之於新學小子, 而獨闕乎擇善固執之義哉? 若朱夫子所謂者, 乃止至善之極致, 非初學欲誠其意者之事也.

아니다. 박세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극치의 경지”를 논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대학』에서 ‘성의’의 전 단계로서 요구되는 ‘격물치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세당은 명재 윤증과 격물치지에 대해 논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격치(格致)와 존양(存養) 등은 참으로 학문을 하는 데 중대한 절목으로서, 말학(末學)이 감히 가볍게 논할 바가 아닙니다. 단, 이것이 애당초 『대학』 경문의 의의에 관한 해설과 관계없이 그저 선현께서 독자적으로 학설을 세우신 것이라면 결코 제가 감히 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의 경문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들에 대해 의심이 없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⁶¹⁾

박세당은 주희의 ‘격물치지설’ 등이 성리학적 논리체계 안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야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대학』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주희의 ‘격물치지설’에 대한 박세당의 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을 뿐,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리(理)’를 중심으로 하는 주희의 성리학 체계 전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적어도 『대학사변록』에 나타난 박세당의 ‘격물치지설’을 근거로 그를 ‘반주자’ 또는 ‘탈주자’로 규정하는 것은 혹시 존재 강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61) 『西溪集』 卷7, 「答尹子仁書」: 格致、存養等, 誠爲爲學之大節, 固非末學所敢輕議. 但此初不係解說經義, 而直出先賢所自立說, 則在於區區實萬萬不敢輒容一喙. 今顧未然, 經文具在, 實有不能無疑於一毫者.

5. 결론

그동안 박세당은 대체로 ‘반주자학자’ 혹은 ‘탈주자학자’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취급되었던 것이 그의 『사변록』이다. 실제로 그는 『사변록』에서 주희의 학설에 여러 이견을 제기했고, 주희의 작업들에 수정을 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그의 이견과 수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대학사변록』이며, 이런 이유로 그의 ‘반주자학’ 또는 ‘탈주자학’적 성향과 정도를 탐색하고자 한 연구자들은 일찍부터 이 작품에 주목했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대학사변록』을 엄밀하게 분석·검토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사변록』은 『대학』에 대한 주희의 주석이 갖는 문제점들을 지적 또는 보완한 것일 뿐 주희 성리학의 이론체계를 반대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탈하려는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세당을 ‘반주자학자’ 또는 ‘탈주자학자’로 단정하기 위한 근거로 최소한 『대학사변록』을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학사변록』이라는 동일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처럼 상이한 결론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이에 본 논문은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대학사변록』 중에서도 ‘격물치지’라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첫째 ‘격물치지’가 주희 성리학 내에서 갖는 중요성 때문이고, 둘째 박세당이 이 주제에 관한 주희의 설명에 많은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 때문이며, 셋째 앞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이 주제에 관한 박세당의 해석을 잘 분석하면 주자학에 대한 박세당의 좌표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적어도 『대학사변록』에 나타난 박세당의 ‘격물치지’ 해석을 통해서도 그의 ‘반주자학’ 또는 ‘탈주자학’적 의도와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박세당이 주희의 성리학적 이론체계 자체를 부정한 사례를 『대학사변록』에서는 찾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가 누구 못지않게 주희의 학문적 업적을 높게 평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세당이 『대학사변록』을 통해 비판적 이의를 제기한 것은 주희의 ‘격물치지설’이 『대학』의 주석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주희 성리학을 교조적으로 숭상하면서 주희의 학설에 대해 일점일획의 의심도 용납하지 못했던 17세기 조선에서라면 박세당의 이러한 생각마저도 ‘반주자’ 또는 ‘탈주자’의 혐의를 씌워 사문난적으로 몰았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박세당이 저들과 방식이 달랐을 뿐, 주희를 존경하고 주희를 계승하고자 했던 의도가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오늘 박세당을 연구하면서 ‘다름’을 ‘반대’ 또는 ‘이탈’로 바꿔 읽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참고문헌

1) 원전

『肅宗實錄』

『大學章句』

『大學或問』

『西溪集』

『大學思辨錄』

『中庸思辨錄』

2) 논문

강지은, 「서계 박세당의 「대학사변록」에 대한 재검토」, 『한국실학연구』 13, 한국실학학회, 2007.

김세봉, 「서계 박세당의 대학인식과 사회적 반향」, 『동양고전연구』 34, 동양고전학회, 2009.

김세정, 「명재 윤증과 서계 박세당의 격물 논변」, 『동양철학연구』 56, 동양철학연구회, 2008.

김태년, 「박세당의 『사변록』 저술 동기와 『대학』 본문 재배열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상과 문화』 51,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윤미길, 「박세당의 사서주해에 대한 일고찰-다산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9, 한국어교육학회, 2002.

윤사순, 「박세당의 실학사상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15-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이병도, 「박서계와 반주자학적 사상」, 『대동문화연구』 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6.

이영호, 「서계 박세당의 『사변록·대학』에 대한 연구」, 『한문학보』 2, 우리한문학회, 2000.

철학탐구 제51집

이종성, 「서계 박세당의 실학적 격물 인식·명제 윤휴과의 격물 논변을 중심으로」, 『공자학』 19, 한국공자학회, 2010.

**Park Se-dang's Interpretation of the ‘Gaining
knowledge by the study of things’(格物致知) and
the Characteristics of Criticism against
Zhu Xi on the *Daehaksabyeonrok***

Han Jae-hoon (Yonse Univ.)

Park Se-dang has been regarded as an anti-Zhu xi or de-Zhu xi scholar. the *sabyeonrok* was treated as the supporting material for this assessment, and the *Daehaksabyeonrok* is the most prominent. Recently, however, several researchers presented a different view from previous assessments based on their careful analysis of *Daehaksabyeonrok*. Their point of view is that Park se-dang was only trying to point out and supplement the problems of Zhu xi's explanatory notes, but he was not critical of the overall theory of Zhu xi. This paper was designed to make a correct assessment of Park Se-dang by analyzing and reviewing his interpretation of the ‘Gaining knowledge by the study of things’(格物致知) on the *Daehaksabyeonrok*.

On examination, there was no evidence that Park Se-dang would be judged as an anti-Zhu xi or de-Zhu xi scholar, at least in his interpretation of the ‘Gaining knowledge by the study of things’ which appeared in *Daehaksabyeonrok*. Not only was I unable to find a case in *Daehaksabyeonrok* in denying the Zhu xi's philosophical theoretical system itself, but I also confirmed that he could appreciate Zhu xi's academic achievements as highly as anyone else. Park Se-dang raised a critical objection through *Daehaksabyeonrok* because he wanted to make

철학탐구 제51집

it clear that Zhu xi's explanation of the 'Gaining knowledge by the study of things' was not appropriate as a explanatory note of *the Great Learning*(大學).

Key words: Seogye, Park Se-dang, Zhu xi, Daehaksabyeonrok, Gaining knowledge by the study of things

한재훈 E-mail: kjydist@hanmail.net

투 고 일	2018년 07월 15일
심 사 일	2018년 07월 30일
계재확정	2018년 08월 14일